

고창군 “귀농·귀촌 체험해보고 선택하세요”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30세대 주택·텃밭 갖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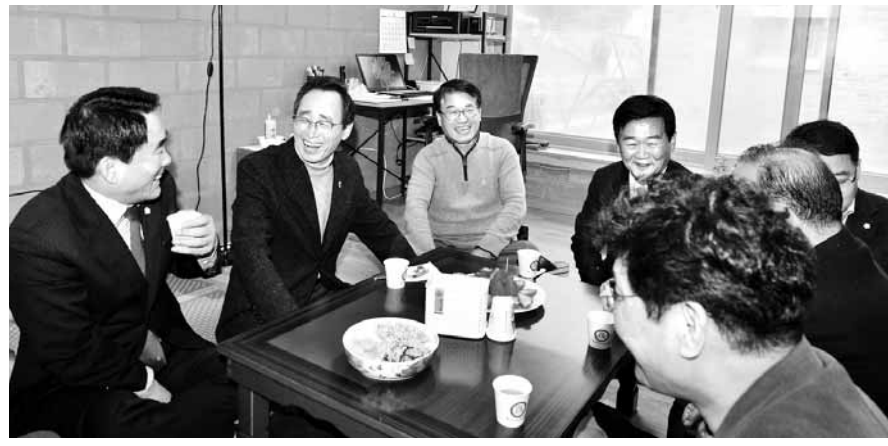
영농기술·실습장 지원

“귀농·귀촌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예비 귀농·귀촌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촌적응과 농업창업 과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고창에 들어섰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클러스터에 귀농인 30세대가 거주할 주택 등을 갖춘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부안면 용산리 일원에(북분자로 568)에 조성된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난 21일 박우정(맨 왼쪽) 고창군수와 송하진(왼쪽에서 두번째) 전북도지사가 농업창업지원센터 내 주택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고창군 제공>

는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2016년 12월 착공해 2017년 말 완공됐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귀농

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시설로는 예비 귀농인 30세대가 거주할 주택 30호와 교육관 2동, 공동체실습 하우스, 냉동창고, 가족단위로 직접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세대별 텃밭 등이 갖춰져 있다.

박우정 군수는 “예비 귀농인이 농촌 정착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문인 주거와 영농기술 습득 문제를 이번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해 획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더욱 많은 도시민이 고창으로 귀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선배귀농귀촌인과 선도농가 등 든든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박형진기자 phj@



광양경제청, 조합규정 개정안 의결

투자유치 활성화 등 11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의장 서일웅)는 22일 제9회 임시회의(사진)를 열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포함한 조합규정 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투자유치본부를 ‘세일즈형’ 마케팅에 최적화된 더욱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국내유지부(4개팀)와 해외유지부(3개팀), 투자기획팀으로 나뉜 투자유치본부를 투자유치 1·2단으로 개편하고 각 단장 직할체제를 채택해 사안에 따른 T·F팀을 가동해 조직을 신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청장 직속 홍보담당관은 홍보마케팅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고 세일즈형 홈페이지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세풍산

단 토지매입과 조직개편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풍산단 개발원가 절감을 위한 금융약정 변경, 세풍산단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등이 의결됐다.

한편 보고 안건으로 국내외 투자여건 악화로 침체된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과 접근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각 부서별 2017년도 업무무성과 목표 달성 평가 결과 등이 보고됐다.

강효석 광양경제청 청장직무대리는 “산단 분양 실적 부진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지연 등 어려움이 있지만, 투자유치 목표 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투자유치에 매진함으로써 광양경제청이 재도약하는 변곡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남원시 용궁마을에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다. 용궁마을은 수령 50년 이상된 산수유나무 수백그루가 연출하는 노란 꽃이 고풍스러운 돌담길, 논밭과 어우러지며 한 폭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산수유꽃축제

내일 용궁마을서 개최

수십년 된 노목이 피워내는 노란 꽃을 즐기는 ‘제9회 용궁마을 산수유꽃축제’가 24일부터 남원시 용궁마을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해발 1050m의 지리산 영재봉 기슭에 자리한 용궁마을을 감싸는 수령 50년 이상 된 산수유나무 수백 그루에 만발한 꽃을 감상하는 자리다.

산수유꽃이 고풍스러운 돌담길, 논밭과 어우러지며 한 폭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산수유 가족 동요대회와 가요제, 산수유 돌담길 걷기, 소원 리본 쓰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지역의 농특산물도 싸게 살 수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군산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선정

군산시와 펀빌리지협동조합(원도심 게스트하우스 단체)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8년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8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공공이유가 가능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19개의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서유심사와 면접 및 PT 발표를 거쳐 군산시, 충남 천안시, 포항시, 부산 영도구 등 4곳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군산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근대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신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서로 알아가고 이해·협력하는 주민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말랭이 교실 운영 ▲말랭이 공방 운영 ▲지역 정체성 발굴을 위한 마을 주민 조사기록화 사업 ▲마을이야기 제작 ▲월명산의 자연과 어우러진 ‘기억의 꽃밭 만들기’ 등이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정읍시, 생태 교란 외래어종 수매사업

배스·블루길 대상

1kg당 5000원에

정읍시는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어종은 큰입배스와 파랑볼우럭(블루길)이다.

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배스와 파랑볼우럭을 1kg당 5000원씩 수매한다. 사업량은 1680kg이며 목표 달성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1960년대 후반 내수면의 어업자원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배스·블루길이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어 지난 2016년부터 수매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시는 이는 2016년과 2017년 배스와 블루길 2640kg을 수매한 바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한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교란시켜 생태계 파괴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농기센터, 도시농업전문교육 실시

국가자격증 취득 기회

차후 텃밭강사 활동도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을 선도할 맞춤형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교육생으로 36명을 선발했으며 교육은 이날부터 올해 8월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20회(8시간) 진행된다. 수료증은 출석률 80%와 평가시험 8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생에게 발급된다.

수료증을 발급받은 교육생들은 원예와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등 기능상 이상의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

하게 된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전문가로 학교 텃밭강사 및 멘토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시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난해 배출한 수료생 중 일부를 강사로 선발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원예활동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4월 전북도 최초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그 중 9명이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습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시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옥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